

한-EU 정상 공동 기자회견

한-EU 정상회담을 통해서 EU를 이끌고 계신 지도자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회담을 통해 무엇보다도 한-EU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해서 민주주의와 인권, 시장 경제 등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반하넨 총리, 바호주 집행 위원장과 나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, 과학기술, 환경,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. 또한 교역투자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는 통상 현안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

나와 EU 정상은 갈릴레오 프로젝트, 핵융합 실험로 건설 등 EU가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방금 서명한 갈릴레오 협력 협정은 이러한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나와 EU 정상은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나는 EU가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반하네 총리와 마호주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. EU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델이며 꼭 필요하고 믿음이 가는 친구입니다. 한국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.

오늘 회담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EU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○ 헬싱인 사노마트 기자 : 고이즈미가 일본 측은 한-중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-중에 있다고 했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고이즈미 총리와 만날 용의가 있으십니까? 한국에 UN 사무총장 후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차기 UN 사무총장이 한국인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?

○ 고이즈미 총리 말을 나는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. 내게 그런 제안을 해 온 바도 없습니다. 아마 조만간 일본에서 새 총리가 선출될 것이어서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 내용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.

국가이든 개인이든 전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않는 법입니다. 가능성이 있는 일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○ 핀란드 TV 기자 : 미국에서 대북 제재 보도가 있습니다. 미국이 이렇게 할 경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무엇입니까?

○ 얼마 전 TV를 보니까 부시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 ‘그거 정보 사항인데, 다 말하라는 것이냐’ 며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. 그 외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.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,

부시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고도의 기밀이 필요한 문제여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.

큰 틀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어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방법으로 협력해 노력할 것입니다. 그것이 압력이 되든 아니 되든 6자회담을 정상화시켜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